

등록번호- 서초, 라11865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년 9월~10월
VOL.

기도월력

289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 베드로전서 4:13 -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9월 1일 화요일 / 인도 (12위)

기독교 반대 시위로 고향에서 쫓겨난 인도 바르다(Bharda) 마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조차 자유롭지 못한 억압 속에서도 현지 성도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대피한 가정에 안전한 거처와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며, 핍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29위)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땅에서 극심한 빈곤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콩고민주공화국 노스키부(North Kivu) 지역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 중에도 현지 사역자를 통해 전달된 긴급 구호금이 굳건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속히 치안이 회복되어 쫓겨난 성도가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 키르기스스탄 (40위)

가정교회를 '극단주의'로 규정하여 예배드리던 성도 5명을 억울하게 구금하고, 남겨진 성도마저 추가 수사로 위협하며 거세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조사가 속히 끝나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극심한 위협 속에서도 현지 기독교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어 핍박받는 키르기스스탄 땅에 진정한 예배의 자유와 평안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 에라이즈아프리카

유엔(UN) 특별보고관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무장 단체의 납치와 폭력이 마을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며, 두려움과 종교적 핍박 속에 놓인 현지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나이지리아 성도의 무너진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

어져 나이지리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며 이 땅의 모든 지역에 참된 신앙의 자유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 수단 (4위)

참혹한 내전과 드론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무장 단체가 여성을 전리품으로 취급하며 잔혹한 폭력을 일삼아, 기독교 공동체와 약자가 극심한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피난길에 지친 수단 성도를 주의 날개 아래 지켜 주사 두려움에 떠는 여성과 상처 입은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의한 전쟁이 속히 끝나길 기도합니다.

9월 6일 주일 / 중국 (17위)

쓰촨(Sichuan)성 이른 비 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에 경찰이 들이닥쳐 성도 30여 명을 연행하고 지도자를 구금하는 등, 당국의 포상금 신고제와 감시로 인해 중국의 가정교회가 극심한 억압과 탄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불법 집회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성도와 남겨진 가족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핍박 속에서도 중국 가정교회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예배를 이어가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 인도 (12위)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나라얀푸르(Narayanpur) 지역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와 파업이 예고되어, 예배당 철거 위협과 폭력의 두려움 속에 현지 성도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거센 핍박과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현지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해 주사 교회 파괴나 무력 충돌을 막아 주시고, 미움과 갈등이 팽배한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화해와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한 교회에서 열린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경찰과 당국이 들이닥쳐, 불법 종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성도와 아이를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교회 폐쇄를 위협하며, 거세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조사를 받는 청소년과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지해를 부어 주사 핍박 앞에서도 위기를 담대히 이겨 내기를 기도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 이란 (10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정이 진행 중이나,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논의가 철저히 배제되어 오히려 이란 내 기독교 개종자와 가정교회를 향한 당국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거세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표면적인 평화 뒤에 가려진 이란 성도가 겪는 억울함과 고통 속에 부당하게 갇힌 자가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이란의 성도가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 내기를 기도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 시리아 (6위)

다마스쿠스(Damascus) 교회에서 일어난 참혹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족을 잃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성도가 깊은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갇혀 여전히 예배당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실과 아픔을 겪는 시리아 성도의 상한 마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어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아가며 현지 교회가 참된 평안 속에 세워 지기를 기도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 아프가니스탄 (11위)

헤라트(Herat) 지역에서 복장 규제와 억압에 항의하며 평화 시위에 나선 여성을 향해 탈레반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고한 이가 체포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차별 속에 놓인 하자라(Hazara) 부족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명예가 속히 벗겨져 억압받는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회복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 라오스 (28위)

남부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 수련회에 당국 경찰과 공무원이 세 차례나 들이닥쳐서 모임을 강제 중단하고 사역자를 연행해 조사하는 등, 지역 내 기독교 활동에 대한 감시와 억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라오스 교회와 다음 세대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지혜롭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웃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라오스 땅에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9월 13일 주일 / 나이지리아 (7위)

무장 단체가 학교와 교회를 습격해 짓밟아 아기부터 학생, 노인과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납치하고 있으며, 몸값을 내고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거나 목숨을 잃는 참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두려움 속에 갇힌 이들 모두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센 폭력 앞에서도 나이지리아 교회가 굳건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 / 니카라과 (32위)

정부가 교회를 심하게 감시하고 핍박하여, 수많은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등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현지 목회자와 성도에게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평안을 주사 억울하게 가족과 헤어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니카라과 땅에 참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 베네수엘라 (69위)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성도가 삶의 터전과 예배당을 잃었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식량이 부족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밖으로 대피해 서로를 위로하며 믿

음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너진 일상과 예배당이 속히 회복되기를, 고립된 피해 지역에 구호의 손길과 일용할 양식이 신속히 당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반툴(Bantul) 지역의 한 교회가 이슬람 단체와 이웃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일 예배마저 방해받고, 결국 교회 문을 닫은 채 온라인으로 모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가는 현지 성도를 위로하시고, 온 성도가 다시 교회에 모여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 에티오피아 (36위)

아르시(Arsi) 지역에서 100년 넘는 교회가 불타고 정통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공격이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280여 명의 성도들이 갈 곳을 잃고 들판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이들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사, 다시 일어설 힘과 안전한 거처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 파키스탄 (8위)

아동 성폭력과 착취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아동 결혼을 정당화하는 관습과 종교적 관행이 깊게 뿌리 내려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납치되어 개종과 결혼을 강요당하는 소수 종교 가정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새롭게 마련된 이 법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차별 없이 바르게 집행되어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 필리핀

민다나오(Mindanao) 해안에 규모 7.8의 강진과 쓰나미 경보가 발생하여, 해안가 주변 위태로운 가옥에 거주하던 성도들이 급히 피난길에 오르고 생계 터전을 잃는 등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여진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현지 협력 사역자들이 지혜를 모아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0일 주일 / 베네수엘라 (69위)

국경 지역에서는 무장 단체가 마을을 통째로 장악하고, 사람들의 일상과 교회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현지 목회자와 성도에게 핍박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모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환한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 네팔 (46위)

한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목회자가 힌두 극단주의자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며, 이후 마을의 감시가 심해져 성도들이 뿔뿔히 흩어져 몰래 모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통받는 목회자와 성도를 보호해 주사 더 이상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9월 22일 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이슬람에서 개종한 한 가정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렀다는 이유로 이웃들에게 거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밤중 2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모진 압박을 받던 중, 아들 카논(Kanon)은 생명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믿음을 부인했지만, 마음속 깊이 구원의 확신을 간직한 이 가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시어 더 이상 핍박받지 않게 하시고, 카논이 성령의 위로와 담대함을 얻어 다시금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 이란 (10위)

전쟁과 인터넷 차단,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이란의 개종 성도와 가족들이 실직과 생계 곤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픔과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란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치료를 공급해 주시고, 거센 압박 속에서도 이란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9월 24일 목요일 / 중국 (17위)

거센 핍박과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중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사역자들은 숨어서 힘겹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숨어서 예배하는 어린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침내 마음껏 찬양할 자유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굳건한 신앙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25일 금요일 / 인도 (12위)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의 바르다(Bharda) 마을에서 기독교 개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큰 물리적 충돌은 피했으나 홀어머니를 포함한 세 가정이 신앙을 이유로 마을에서 강제 추방당

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두려움에 떠는 이 가정에 안전한 피난처와 신속한 도움이 제공되게 하시고, 경찰과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나서서 성도를 향한 위협을 막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26일 토요일 / 스리랑카 (65위)

산디야(Sandya)는 복음을 듣고 삶의 절망에서 벗어났으나,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극심한 폭언과 불교 의식 강요 등 가정 내에서 매일 힘겨운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산디야가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핍박하는 남편의 마음이 마침내 열려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7일 주일 / 이라크 (18위)

북부 부족 마을의 이슬람 개종자인 야신(Yasin) 성도는 가족의 살해 위협과 방화, 직장을 잃는 극심한 경제적 고립 속에서도 양치기로 일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내의 건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아버지를 따라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야신의 두 자녀와 그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 쿠바(24위)

정전과 식량난 시위 직후 부당하게 체포되어 성인 최고 보안 교도소에 4개월간 수감되었던 17세 조나단 뮤어 부르고스(Jonathan Muir Burgos) 형제가 마침내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악한 수감 생활로 인해 병든 조나단의 육신과 마음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며, 여전히 불확실한 그의 법적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부당한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9일 화요일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2위)

지난 4월 연합 전도 집회를 인도하던 세 명의 목사가 중무장한 반군에게 납치되어 성경이 불태워지고 구타당하였으나, 성도들이 힘을 모아 몸값을 지급한 덕분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흩어진 성도를 찾아다니며 굳건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현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끝없는 폭력과 핍박으로 얼룩진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9월 30일 수요일 / 인도 (12위)

힌두교 극단주의 세력의 거센 핍박으로 인도 전역에서 예배당이 폐쇄되고 폭력이 난무하며, 특히 개종한 성도가 폭행을 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 복지 혜택마저 빼앗기는 등 극심한 생존 위협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 속에 놓인 인도 목회자와 성도를 주의 강한 팔로 보호해 주사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불의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인도 땅에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 핍박하는 자의 마음이 변화되고 참된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10월 1일 목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29위)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동부 이투리(Ituri) 지역 성도가, 최근 치명적인 에볼라(Ebola) 바이러스마저 급속히 퍼지며 목회자 9명이 목숨을 잃고 예배와 교제마저 중단되는 고립과 생명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염병과 핍박의 이중고 속에서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피난민 성도를 보호해 주사 질병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모이기 힘든 제약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길 기도합니다.

10월 2일 금요일 / 중앙아시아

한 지역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 훈련 중 경찰과 종교 위원회 관리들이 들이닥쳐, 미성년자에게 종교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성도들과 5명의 청소년을 분리하여 심문하고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함께 심문받던 어린 청소년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교회의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 양육을 방해하는 모든 억압이 속히 멈추길 기도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해상 빈민인 바자우(Bajau)족 마을에 들어간 사역자들이 신분 노출과 도난, 험난한 바다의 위협 속에서도 교사와 어부의 모습으로 다가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적조차 없이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활짝 열려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역 팀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4일 주일 / 나이지리아 (7위)

보코스(Bokkos) 지역의 기독교인 마을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 마커스 남(Markus Nyam) 목사를 비롯한 의료진 등 최소 21명의 성도

가 목숨을 잃는 참혹한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영적 지도자를 잃고, 깊은 슬픔과 공포에 빠진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부 당국이 무고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의지와 지혜를 발휘하여 끔찍한 폭력이 속히 멈추길 기도합니다.

10월 5일 월요일 / 수단 (4위)

전 세계의 외면 속에 대규모 난민과 무인기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잔혹한 폭력과 성범죄 위협에 노출된 기독교 성도들과 여성들이 극심한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과 지도자를 보호해 주시고, 상처 입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난민 캠프마다 일용할 양식과 안전한 피난처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 중앙아시아 청각장애 공동체

청각장애인들은 평생 소외와 거부 속에서 살아가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국가의 교육 지원이 전혀 없어 글을 읽거나 수화를 배우지 못해 소통과 신앙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는 수화 및 문해 교육을 통해 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길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0월 7일 수요일 / 북한 (1위)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 여성이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 붙잡혀 강제 복송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을 모함하고 공동체를 이간질하려는 악한 세력들로 인해 현지 사역마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제 복송의 공포와 핍박 속에 놓인 탈북 여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사 모든 거짓되고 악한 계획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이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 라오스 (28위)

북부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30명이 신앙을 포기하라는 마을 지도자와 당국의 회유와 협박을 끝까지 거절하여, 고향에서 쫓겨난 채 비좁은 임시 피난처에서 극심한 생계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핍박받는 성도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고 새로운 터전이 마련되길 기도합니다.

10월 9일 금요일 / 중국 (17위)

당국의 거센 핍박과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다음 세대 아이들과 사역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십 대 청소년들이 직접 교회학교를 인도하며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억압 속에서 동생을 섬기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훗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굳건한 신앙과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 부르키나파소 (16위)

이슬람 무장세력의 총격과 방화 테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파티(Fati)와 가족들은, 피난길에 남은 짐마저 모두 도둑맞고 빈손으로 수도 와가두구에 도착했습니다. 파티는 여전히 총소리의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지 교회의 사랑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붙들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파티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1일 주일 / 시리아(6위)

최근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많은 가정이 끼니를 거르고 아이들이 영양실조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며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시리아 성도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고, 현지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소액 대출과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이 가난을 이겨내고 든든히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2일 월요일 / 모리타니 (21위)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모리타니에서는 개종을 처벌하는 배교법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족과 사회의 반대와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자유롭게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배교법이 하루속히 폐지되고 모리타니의 성도가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3일 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최근 나라 전역에서 불과 석 달 만에 90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보호망이 취약한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를 비롯한 소수 기독교인이 공격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폭력과 무법천지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와 사역의 자리를 지키려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방글라데시 당국이 속히 질서를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10월 14일 수요일 / 스리랑카 (65위)

85세 쿠수말라타(Kusumalatha) 성도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자신이 지은 집에서조차 아들과 며느리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며 손주들과의 만남까지 금지되는 핍박을 겪고 있

습니다. 고령과 매일 이어지는 차가운 냉대 속에서도 주일마다 걸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쿠수말라타 성도에게 끝까지 시련을 견뎌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 베네수엘라 (69위)

북부 지역을 40초 간격으로 덮친 두 차례의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많은 성도가 삶의 터전과 예배당을 잃고 끊어진 전기와 통신, 부족한 구호물자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적 위기와 끔찍한 재난이 겹쳐 캄캄한 절망 속에 놓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여 무너진 일상과 교회가 속히 회복되고, 고립된 지역마다 신속한 구호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 나이지리아 (7위)

북부 지역에서 극단주의 무장 단체에 의해 영유아와 교사 등 백여 명이 집단 납치되고, 탈출을 시도하던 기독교인 포로들이 참수당하는 참혹한 핍박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끔찍한 공포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어린아이들과 피랍된 성도를 주님의 군센 팔로 안위하사 무사히 구출해 주시고, 숨 막히는 환난 중에도 나이지리아의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 중국 (17위)

지난해 체포되었던 중국 시온교회의 진(Jin)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8명의 목회자와 동역자들이 더 무거운 혐의를 뒤집어 쓴 채 억류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가정교회를 향한 당국의 급습과 처벌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캄캄한 감옥에서 핍박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역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10월 18일 주일 / 니제르 (26위)

틸라베리(Tillab ri) 지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의 마을 습격으로 남편을 잃은 하쿠리(Hakuri) 성도와 자녀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으나, 현지 동역자들의 지원으로 다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잔혹한 폭력과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니제르의 핍박받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벼랑 끝에 내몰린 하쿠리 성도 가정에 아이들의 학비와 일용할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9일 월요일 / 스리랑카 (65위)

미란(Miran) 형제는 복음을 듣고 오랜 방황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았지만, 불교 신자인 장인의 극심한 핍박과 경찰 고발 끝에 결국 가족과 함께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거처를 잃는 막막함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장인을 섬기며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미란 형제의 가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속히 이들의 온전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핍박하는 가족마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간증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월 20일 화요일 / 멕시코 (30위)

거대 범죄 조직이 장악한 멕시코의 우범 지대에서는 현지 사역자들이 축구를 매개로 굳게 닫힌 이웃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축구 선수의 꿈을 내려놓고 기꺼이 핍박의 현장으로 뛰어든 헤레미야스(Jerem as)와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 폭력에 상처받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10월 21일 수요일 / 나이지리아 (7위)

무장 풀라니(Fulani) 족의 습격으로 가족을 잃고 난민 캠프에 머물던 나이지리아의 바두(Badoo) 자매가 현지 동역자의 직업 훈련 지원으로 재봉 기술을 배워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끝에 자립의 기쁨

를 얻은 바두 자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끔찍한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피난민 성도가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자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2일 목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최근 나라 전역에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보호망이 취약한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를 비롯한 소수 기독교인이 범죄와 종교적 표적 공격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무법천지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성도를 강하신 팔로 보호해 주시고, 당국이 속히 질서를 회복하여 모든 성도가 두려움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3일 금요일 / 중국 (17위)

중국 북서부 이슬람 지역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현지 동역자들의 독서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14세 소녀 샤오구(Xiaogu)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슬람 지역의 다음 세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4일 토요일 / 모잠비크 (39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북부에서 오마르(Omar) 사역자는, 억울한 누명과 살해 위협 속에 피난을 떠났음에도, 핍박받는 성도를 돕기 위해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기꺼이 돌아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넘어 사역지로 돌아간 오마르와 가족의 안전을 강하신 팔로 보호해 주시고, 끝없는 폭력과 억압으로 묶인 모잠비크 땅에 십자가의 참된 평화와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5일 주일 / 북한 (1위)

최근 더 극심해진 주민 통제와 종교 물품 단속을 벌이며 지하 교회를 적발하고 추척하는 공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는 북한의 지하 교회와 비밀 신자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무자비한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어 북한 전역에 생명의 복음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26일 월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동자바(East Java)의 한 시골 교회 성도는 척박한 농사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 이단 취급을 받으며 소외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모실 수 없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와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동반자 사역을 통해 이 교회가 온전한 돌봄과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7일 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폭력과 박해를 당하고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법적 보호망마저 잃은 채 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무런 보호막 없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핍박받는 자들을 공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하고 정의로운 인권 기구가 그 땅에 속히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8일 수요일 / 파키스탄 (8위)

신성모독이라는 거짓 누명을 쓴 데니스 알버트(Dennis Albert)와 나딤 마시히(Nadeem Masih) 성도가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아미르 피터(Amir Peter) 성도는 수감 중 방치되어 끝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풀려난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아미르 성도의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9일 목요일 / 말리 (15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무차별적인 테러로 인해 교회가 습격을 당하고 성도가 납치되며 수많은 기독교인이 삶의 터전을 잃는 끔찍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현지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핍박받는 이 땅에 무력 충돌이 끝나고 참된 평화와 신앙의 자유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30일 금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29위)

동부 지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피해 북쪽으로 이동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가 기독교인을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 공격하면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뭉베레(Mungbere) 마을의 성도 14명이 두 차례의 습격을 받아 참수당하고 순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잔혹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켜내는 현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31일 토요일 / 중앙아시아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성경 속 다윗의 생애를 다룬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슈퍼북(Superbook) 등 다양한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의 여름 캠프를 통해 배포되는 이 귀한 영상물들이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다음 세대의 마음을 만지고, 성경적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강력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penDoors

(0658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